

이윤석 조직본부장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당직자 인터뷰

최재천 정책위의장

# “인재 확보, 공정 원칙으로 총선 승리” “호남은 민주·민생 개혁 인물 원해”

이윤석 조직본부장은 무안에서 두번 연속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동료동계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전남도의원 출신인 그는 무서운 집념으로 중앙 정계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사무총장제를 폐지하면서 바뀐 당직 구조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조직본부장을 맡아 주목받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계열로 분류된다.



당직 인선으로 당 봉합국면 소통 통해 계파간 가교역할

이 본부장은 “총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신당·분당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의 골격인 조직을 담당하게 된 만큼 임무 추진에 신중을 기울여야겠다”는 입장을 소개했다.

급선무가 무엇이나 물음에는 “우선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라는 계파 간의 가교역할을 위해 많은 의원들과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업무적으로는 당장 10월 재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해당 시도당에 공직자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예비후보자를 받을 수 있다. 전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당원정비도 해야 하고 각 지방별 계층별 위원회도 지원해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재 위기 상황만 보면 어렵다고 전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 많은

의원들이 더 이상 갈등하고 분열하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문재인 대표가 탄핵인사를 했다. 이제 갈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돼 가는 중이다. 당이 하나로 뭉쳤을 때 총선 전망은 180도 달라질 것이다”라며 통합을 승리의 관건으로 꼽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2일 탕평에 방점을 둔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노(비노무현) 계열 인사들이 대거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호남 출신 의원들의 발탁도 두드러졌다. 이에 광주일보는 27일 이번 인사에 포함된 전남 출신 이윤석 조직본부장과 최재천 정책위의장을 인터뷰했다.

더불어 “총선 승리를 위해 조직부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공정한 원칙을 세워 시스템 공천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다. 실질적인 당원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하고 전국 지역위원회별 실사·평가도 해야 한다. 후보자 검증도 필요하다. 골격인 조직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역설했다.

신당·분당론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 없었다. “당이 혼란스러운 것은 한마디로 불신의 문제”라고 진단한 그는 “불공정 공천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이 상태로 총·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이번 당직인선으로 인해 갈등이 봉합국면에 들어선 분위기다. 자연스럽게 신당·분당론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로 판단된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신당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과연 성공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천탈락자들이나 공천이 어려운 사람들이 선거를 위해 모인 정당은 실패한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서울 성동갑)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여의도에 다시 입성한 재선 국회의원이자, 새정치연합의 대표적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최 의장은 정책의 중요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밝혔다. “정치의 다양한 요소 중 정책을 특히 중시해왔다. 그래서 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 자리가 더욱 무겁고 뜻 깊게 다가온다. 정책적으로 선명하면서도 민중친화적 활동으로 당이 유능한 정책당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당면과제로는 국정감사를 꼽았다. “9월로 예정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하러 한다. 민생파탄과 정치경제적 난맥상에 정부의 정책 실패가 핵심 원인은 아닌지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해 이번 국정감사가 뜨거워질 것임을 내비쳤다.



가계소득성장·경제민주화 천명 성장 친화적 진보 주도할 것

당에 대한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은데 원인이 무엇이나 물음에는 “호남은 민주와 민생을 위한 개혁의 가치를 실현할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강렬하다. 민주와 민생의 가치를 표방하는 새정치연합이 이런 호남 민심을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간에는 이런 기대에

못 미친 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내에서 이같은 호남 지역의 역사가, 곧 민주 개혁에 대한 한결같은 지지를 무시하거나 왜곡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 지도부가 성난 호남 민심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호남이 정권 교체와 민주 민생 개혁의 완수를 위한 아권의 결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최재천 정책위’가 할 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가계소득 주도성장론’과 ‘경제민주화시선2’를 당의 핵심 노선으로 천명했다. 이처럼 성장과 분배 모두 민생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질곡에서 빠져나오려면 성장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소수만이 혜택을 누리는 성장 아닌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준비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이 성장 친화적 진보를 주도하는 데 기여하러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의 실패, 일자리정책의 실패, 청년고용정책의 실패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개혁의 대상은 노동에 앞서 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이다”라며 강력한 견제가 뒤따를 것임을 암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시의원, 전국서 가장 부지런하다

입법실적 전국 1위... 1인당 조례 제개정 1.62건

최근 8년 간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입법 실적이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현황과 시사점’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광주시의원들의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는 1.62건으로, 전국 광역의회 중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0.88건이었다.

이 기간은 광주시의회 제4대 의회에서부터 6대 의회까지 포함되는 시기이며, 이 가운데 지난 5대 의회의 입법 실적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 ▲인천시의회 1.75건 ▲대구시의회 1.31건 ▲충북도의회 1.27건 ▲대전시의회 1.23건 ▲제주도의회 0.88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를 보면, 2013년도에 1.16건으로

가장 높았고 선거가 있던 2010년에는 0.52건으로 가장 낮았다.

광역의회의 의원 발의 실적의 경우, 2007년 비율이 17.8%에 불과했으나, 2011년부터는 4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시했다. 이는 2006년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전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법규의 양적 증가는 궁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등의 이유로 975건이나 재의요구됐고 158건은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지자체 스스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DJ 추모 평화콘서트·깃발전·서예전 ...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서거 6주기 잇단 문화행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하 김대중 기념관)이 오는 8월 서거 6주기를 맞아 대대적인 추모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평화축전은 8월1일 추모 평화콘서트를 시작으로 추모 여록 서예전, 깃발전, 시화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1일 기념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평화콘서트에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의 안치환과 ‘개똥벌레’의 신형원 등이 출연해 공연을 펼치고, ‘김대중 그 불멸의 순간’ 기획전의 일러스트 작가인 손문상 화백이 직접 그려주는 팬 사인회도 함께 열린다.

이어 2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700~800명이 참가해 하의도 생가를 방문

하는 김대중 평화캠프도 개최된다.

또 김대중 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는 광주전남 유명 서예가들이 김대통령의 여록을 서예로 승화시킨 작품 40여점이 1일부터 9월 말까지 특별 전시 된다.

이와 함께 8월 한 달 동안 기념관과 평화의 섬 삼학도 일대에서는 목포서예협회 회원들의 작품 200여점이 깃발로 제작돼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목포 문인협회 회원들이 DJ를 상기할 수 있는 시나 산문을 깃발로 제작·전시하는 깃발 시화전도 병행돼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최명호 관장은 “대통령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단순한 추모식 대신 추모문화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시민 참여형 축제로 승화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내년 교부세 감소로 자체 자원 부족 전남도, 4년만에 지방채 발행하나

전남도가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교부세가 급감하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잉여금으로 간신히 예산을 썼지만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 여부를 검토해야할 지경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교부세가 지난해에 비해 1295억원 감소했으나 태풍피해 예비비가 남아있는데다 지방세가 늘면서 이를 보충할 수 있었다.

최근 전남도가 고시한 ‘2014년 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고시 재무결산’에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5617억3300만원, 재정 운영결과 남은 수익은 5379억7400만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태풍 등 자연재해가 적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가 급증한 결과다. 그러나 대체 자원이 없었다면 전남도는

가채할 수밖에 없었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 F1 경주장 인수를 위해 1980억원, 2012년 지방도 건설을 위해 500억원의 지방채를 낸 뒤 3년간 빚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채무는 지난 2012년 7512억원(지역개발기금 등은 제외), 2013년 6660억, 2014년 6529억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에도 교부세가 감소하면 자체 자원이 부족해진 전남도가 4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세수가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덜 걷히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자체 추진하는 계속·신규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정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미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인

www.brighteye.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